

멀티미디어 산업정책 동향

상공자원부 정보진흥과

1. 기본방향

정부는 멀티미디어 산업이 '90년대 최대 유망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멀티미디어 산업전략을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해서 제1단계로 하드웨어 부문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기술개발력 증대와 부품 및 보드 산업의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니치(Niche) 마켓 창출을 통한 선진기업과의 차별화를 실현하는 한편 우수 타이틀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유정보를 공개하고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제품 포상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제2단계에서는 방송, 신문저널, 출판 등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 정부/산업계의 정책협의 활성화와 설

편집자주 : 본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KOEX에서 개최된 멀티미디어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비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멀티미디어산업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며, 유선방송 등 뉴미디어 부문은 국내 기술력에 의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보급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정보시스템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다.

제3단계에서는 범부처 공동으로 『초고속 정보통신체계구축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첫째, 영상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최대 응용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여 국내산업, 국내 정보에 의한 멀티미디어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문화체육부·공보처의 공동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다.

둘째, 시장진입장벽의 발전적 철폐를 위해서 산업융합화에 의한 신규 유망산업 창출과 관련산업간 협력촉진, 민간 창의력의 극대화 및 참여촉진을 통한 민간주도적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관련법률 및 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수요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및 멀티미

디어 외주를 확대할 것이며 교육, 의료, SOC 등 공공부문의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에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5개년 사업('93~'98)을 연동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공자원부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다섯째, 민관 공동추진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정부, 관련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멀티미디어 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2.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가.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5개년 사업추진

(1) 추진체계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사업단은 매년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기본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단 산하에 6개 분야별 『전문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드, 반도체 및 부품, 정보시스템, 단말기, S/W 및 타이틀, 표준화 등의 추진과제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한 『멀티미디어기술 심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기술위원회』에서 발굴된 과제의 종합조정, 우선순위 설정과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심사도 담당할 계획이다. 공통애로 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공고하여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사업참여 가능기관의 총체적 참여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공고없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형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2) 추진과제

(가) 전략기술개발사업

멀티미디어 종합정보처리 시스템 개발 계획은 문자, 화상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자유로이 가공,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문, 방송, 출판, S/W 업계의 공동개발로 이루어질 것이며 1단계 개발사업은 기본시스템 확보로 '95년까지 계속되며 2단계 사업은 '96년까지 B-ISDN 연계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지원자금 53억원을 포함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억원)

	'93	'94	'95	합계
정부지원	16	16	18	50
업계조달	10	10	10	30
합 계	26	26	28	80

* 정부지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출연금(정부회계년도 기준)

전략기술개발 사업의 두번째 과

제는 소형 휴대통신 멀티미디어 컴퓨터 개발로 '97년까지 계속 추진 할 방침이다. 무선통신, 펜 입력, 정보처리 능력을 갖는 차세대 핵심 정보단말기 등의 전략기술을 개발 시제품으로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컴퓨터, 반도체 및 부품업체, S/W 및 통신망사업자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1단계로 '96년까지 시제품개발을 완료하고 2단계로 '98년까지 부품국산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비로 정부지원 140억원을 포함 5년간 총 28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며 기타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를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

(나) 공통애로 기술개발사업

전문기업의 공통애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사업단이 멀티미디어 산업협회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3) 기술개발투자계획

정부는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에 '97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부지원은 공업기반기

술 개발사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매년 소요자금의 50% 수준을 지원하게 된다.

	'93	'94	'95	'96	'97	합계
정부지원	20	40	40	20	20	140
업계조달	20	40	40	20	20	140
합 계	40	80	80	40	40	280

* 정부지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출연금(정부회계년도 기준)

나. 관련정책과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종합계획의 연계

(1) 『영상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영상산업발전의 기본 방향은 영상산업을 21세기 대표적 유망산업으로 국가전략산업화하

	'93	'94	'95	'96	'97	합계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40	100	140	140	100	520
전략기술개발사업	60	100	120	120	80	480
합 계	100	200	260	260	180	1,000
정부지원	50	100	130	130	90	500

* 정부지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출연금(정부회계년도 기준)

전략기술개발 사업의 세번째 과제로는 Interactive CATV System / Video Server 등의 신규검토과제를 종합유선방송사, CATV 관련업체의 공동연구로 진행해 나아갈 것이며, Wireless Multimedia News System은 신문사, 컴퓨터 업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선진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

여 오락서비스 개념의 영상산업을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개념으로 전환하여 상공자원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영상산업의 제조업수준 육성계획 발표하고 문화체육부는 문화·체육·청소년 진흥계획에 영상산업 중점육성 포함하게 되며 공보처는 홈비디오 등 영상소프트웨어 육성을 중점 정책과제로 채택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은 상공자원부·문화체육부·공보처가 공동으로 추진체제를 구

축하게 되는데, 산업정책심의회 산하에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 산하에 영상진흥분과위(금융·세제 지원, 분과위(안) 총괄), 영화산업 분과위(영상진흥법 제정 검토), 방송영상분과위(CATV, 방송영상 육성) 등의 3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금년도 공업발전법 개정시 영상산업분야에 대한 신산업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차원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진흥법 제정·행정규제 완화·세제·금융 지원·시설현대화·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다.

(2)『초고속 정보통신체계구축 종합계획』과 효율적 연계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Application 및 관련 산업, 영상소프트웨어 등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다. 정보서비스업의 멀티미디어 산업참여 활성화

정보서비스업의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지원, 정보화 설비투자 지원,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이 중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 지원은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신문출판, 방송, 전문프로덕션 사업자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공업발전기금 첨단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에 동사업자를 추가하여 타이틀 제작 전문업체와의 공동연구를 우선 지원한다.

정보화 설비투자 지원은 동 정보서비스 업체의 디지털미디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참여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 정보화기금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설비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동사업자 포함을 검토·추진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은 '90년대 후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시에 대비하여 '94년부터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유선방송 시스템기술은 전자부품(연)에서 추진중인 CATV 국산화 사업을 연장하여 '95년부터 추진하며, 정보서비스 업체와 관련 하드웨어 및 S/W 업체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라.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 지원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타이틀 외주 확대, 전문타이틀 제작업체의 기술개발지원, 전략기술 개발 사업 추진, 우수 타이틀 보급 촉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이중 정부 및 공공기관의 타이틀 외주 확대는 우선 산업통계연보, 수출입 통계연보, 기업경영분석 등 CD-ROM화가 가능한 자료의 타이틀 제작 외주를 확대할 계획이며 상공자원부가 산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당해기관과 협조하여 타이틀 제작(CD-ROM)을 유도해 나아가며 소요재원은 당해기관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술개발자금을 병행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 타이틀 제작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은 매년 전문기술위원회 타이틀 부문 위원회에서 기술과제를 발굴하여 단기산업기술개발사업·

공통으로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전략기술개발사업 추진은 멀티미디어 DBMS 등 단기산업화가 어려운 과제를 산학연 공동연구로 추진할 것이다.

우수 타이틀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산업협회의 타이틀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타이틀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 표창과 멀티미디어 산업협회를 통해 민간자율적 품질인증 제도 실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마. 멀티미디어 보드산업 진흥

국내산업을 '97년까지 경쟁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기술개발을 추진, 완제품업계와의 기술개발, 마케팅 협력 활성화 및 계열화 촉진을 위해 멀티미디어산업협회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멀티미디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부품공동구매사업 등 가격경쟁력의 제고방안을 강구·추진한다.

공업기술원을 통해 국산제품의 품질인증과 멀티미디어산업협회의 민간자율적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바. 부품산업의 육성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ASIC 개발을 중점 추진하게 되는데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ASIC 개발지원을 위해 전자부품 연구소의 ASIC 개발실의 기능을 확충하여, Electro-21 사업과 연계하여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보

유한 선진업체의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투자자유지역 설치시 핵심부품업체를 중점유치해 나아갈 것이다.

사. 표준화사업의 강화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사업단』이 산업표준원(구 정보산업표준원)과 협력하여 멀티미디어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1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표준원 내에 멀티미디어 표준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체표준규격을 제정하고 KS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 표준정보 확보 및 산업계 보급 사업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아. 멀티미디어 시스템 보급

국내 멀티미디어 수요창출 및 마인드 확산을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발전계획』을 통해 추진중인 PC 천만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300만대 규모의 멀티미디어 PC를 보급하게 된다. 이는 정보산업발전 기획단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로 세부계획이 확정될 것이며 교육용 태이틀 개발·보급사업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자.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응한 제도개선

산업연구원 주관하에 관련단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방송, 통신, 출판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종합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며 연구 추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차. 멀티미디어 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동협의회는 멀티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협의하게 되며, 위원장에 상공자원부차관과 산업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카. 범정부차원의 종합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정시 정보화 정책 심의회를 활용하여 공보처의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체신부의 ISDN 정책 등 서비스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발전될 것이다.

WTO 권한 . 어떤 역할하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신해 세계무역질서를 관리하게 될 세계무역기구(WTO)는 보호주의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주로 공산품의 관세장벽철폐에 주력해 왔던 GATT와는 달리 서비스분야와 지적재산권 등 보다 폭넓은 규율범위와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GATT와는 구별된다.

WTO는 상품교역부문이외에도 GATT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금융 등 서비스부문과 지재권부문도 규율하며 다자간협정(MFA)을 가동하고 있는 섬유도 규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WTO는 이들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 아래에 상품교역이사회뿐 아니라 서비스교역이사회와 지적재산권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환경 오염문제를 무역문제와 연계해 다루기위한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WTO는 최고의 결기구로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두고 그 아래에 상설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가 있으며 분쟁해결기구 등 2개의 별도기구가 설치돼 있다.

일반이사회에 아래에는 상품교역이사회 등 3개 이사회와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행정 업무를 맡을 WTO사무국은 기존 GATT사무국을 승계하게 된다.

WTO의사결정은 회원국이 모두 1표의 권한을 행사, 합의나 다수결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은 회원국 4분의 3이 동의해야 하도록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